

국민 60% “결혼은 당사자, 장례는 가족 중심”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가족의례 인식 변화 20대 절반 정도 비혼 독신·비혼 동거·무자녀 등의 질병·장애 가족돌봄은 돌봄자 지원·정서적 지원도

우리국민 10명 중 6명은 결혼은 당사자, 장례는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8일 전국 1만99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가구원수는 2.3명으로, 2015년에 비해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져 30.4%(2015년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가구 비중은 31.7%(2015년 44.2%)로 크게 감소했다.

가족의 다양한 생활 방식에 대한 수용도가 201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특히 20대의 절반 정도가 비혼 독신(53%), 비혼 동거(46.6%), 무자녀(52.5%)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족 형태 및 생애주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가족의례와 관련 결혼식을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60.3%),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10명 중 6명(58.9%)이 동의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70세 이상도 절반 가

이 등의(당사자 중심 결혼 43.8%, 가족 중심 장례 48.8%)하고 있어, 전통적 개념의 가족에 기반한 가족의례에 대한 인식이 직계가족(부모와 자녀)이나 당사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가부장적·위계적 가족 호칭을 개선하는 것에 20~40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한 반면, 70세 이상의 동의 비율은 27% 수준에 그치며 세대별 격차를 보였다.

이와 함께 자녀 돌봄에 있어서 영유아의 82.3%가 돌봄 기관(어린이집 61.0%, 유치원 35.6%)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 돌봄자는 어머니가 87.4%, 조부모가 9.1%라고 답했다.

질병, 장애가 있는 가족 돌봄은 전체 가구의 4.8%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29.7%), 신체적 고단함(26.6%), 정신적 스트레스(26.2%) 순으로 응답해 주 돌봄자의 실질적 돌봄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필요한 가족 지원 서비스로 노인돌봄 지원(23.3%), 가족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14.3%),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방법 교육·상담 지원(9.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20~30대는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 40대는 가족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 50대 이상은 노인 돌봄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다혜기자 dhkang@halla.com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민·관 상생협력

도·사회복지 관계자 등 협력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 마련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사회서비스원이 성공적으로 설립돼 운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사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2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 적능단체 및 시설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 협력을 교환했다.

이날 상생 협력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민·관이 상호 협력하고, 상생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원 등이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에서 다수의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대상자가 지역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형 통합복지하향로 시범사업'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복지서비스 OECD 평균 수준 도달해야”

원 지사, 복지 간담회서 피력 이용자·현장 중심 시스템 강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복지는 더욱 현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복지 수준을 확대해 역동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코리야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1차 시도지사 초청 사회복지 정책간담회'에서 “복지는 모든 국민의 인간적인 삶의 설계이므로 이용자가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이용자와 민간, 현장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의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어 고용을 매개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하며 “복지서비스는 의존형이거나 시혜성이 아니라 일하는 복지와 자유를 꿈꾸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 소득 창출의 결과로서의 자산, 더불어 디지털 세상에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교육을 복지 사업들과 모두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특히 제주도의 사회복지 사업을 소개하며 “현재 제주도는 예산의 20%를 복지에 쏟겠다는 약속을 지킨데 이어 앞으로 25% 배분을 목표로 가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되 우리나라도 향후 복지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최소한 OECD 국가 평균으로 복지수준을 끌어올려 역동적인 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도에서 추진한 '제주형 통합복지하향로' 정책과 전국 최초로 자체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사회복지 민관협력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복지 분야 내 차별이 심화되는 문제도 꼬집었다.

원 지사는 “지자체에서 하는 복지사업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 등이 현실을 반영하는 반면,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은 현실화되지 못해 복지의 분권사업과 비분권사업 간 복지차별이 존재하므로 지역별 편차와 종사자들 간의 처우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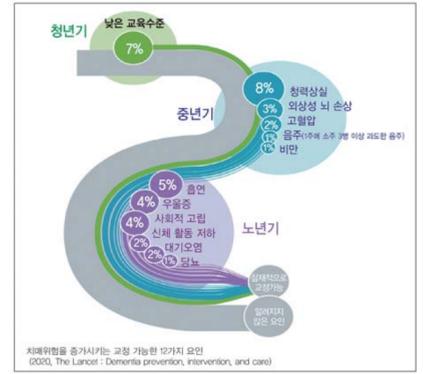
한편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시도지사 초청 사회복지 정책간담회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강다혜기자

치매예방 주간학습지 **노뽕뽕!**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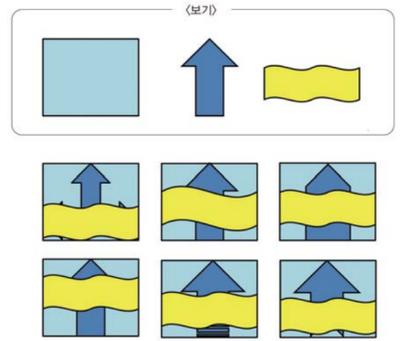
한라일보·제주도 광역치매센터 공동 기획

문제 1. 아래의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 1) 중년기의 교정가능한 위험요인은 전부 몇 %인가? ▶
- 2) 고혈압, 흡연, 우울증, 당뇨를 없앤다면 치매 발생 원인의 %를 줄일 수 있을까요? ▶
- 3) 노년기의 총질병수는 평소 귀가 잘 안들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주로 집에서 누워지내는 생활을 합니다. 또한 매일 소주 1병을 마시고 흡연을 하며,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총질병수는 몇 %의 치매요인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나요? ▶

문제 2. 아래 <보기>의 도형들을 겹쳐서 나오는 모양을 골라 ○표시해 보세요.



문제 3. <보기>에 제시된 단어의 뜻을 보고 해당 단어를 <표>의 빈칸에 넣어 완성해 보세요. (일부 글자가 겹쳐질 수 있습니다.)

- <보기>
1. 월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의 둘째 날
 2. 실제로 드는 비용
 3. 한 번만 쓰고 버림, 또는 그런 것
 4.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
 5. 변소를 달리 이르는 말

<표>

화		

학습지 정답은 13면 한라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1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열세번째 2021. 6. 4(금) ~ 6. 6(일)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산림문화체험사려니숲길위원회 후원 산림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생명과 건강이 넘치는 2021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개최를 축하합니다.

5월 31일(월) 09:00부터 선착순 사전예약(1회차당 20명, 하루 6회)

산림문화체험사려니숲길위원회 064-750-2291, 2543

사려니숲길 붉은오름 입구 (표선면 가시리 산58-4)

사려니숲 생태 사진 전시회

- 일시 : 6월4일~6일 (3일간)
- 장소 : 사려니숲 열린무대(공연장) 주변

※ 모든 공연 및 프로그램은 철저한 거리두기 하에 진행되며 마스크 착용자에 한해 관람(체험) 가능합니다.

숲속 힐링 명상

- 일시 : 6월 5일~6일 (2일간), 하루 2회(오전10시 / 오후2시)
- 장소 :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초입
- 강사 : 김봉진·현경희
- 인원 : 20명 이내(현장 선착순)

'마스크 착용 인증샷' 이벤트

- 기간 : 6월4일~6일 (3일간)
 - 참여 방법 : 사려니삼거리에 위치한 코로나19 예방 홍보 캐릭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증샷 찍기 (행사 본부석에서 확인 후 기념품 제공)
- ※ 상품 소진 시 해당 이벤트는 종료합니다.

위안장
위안장 내시경내트워크
TEL. 721-3117
FAX. 721-7641

위안장 기만덕내과의원

원장 기만덕 내과전문의
제주시 노형로 407 노형타워 3층 302호